

<직지코리아> 직지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작품 전시

기사입력 2016/09/06 17:01 송고

주제 전시에 '직지, 금빛 씨앗' 테마로 11개국 35팀 참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직지코리아의 주제 전시는 11개국 35개 팀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윌리엄 켄트리지의 작품

직지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을 씨앗으로 정의한 '직지, 금빛 씨앗'을 테마로 작가들은 직지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선보인다.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 론 아라드의 파빌리온부터 회화, 설치미술, 사진, 스테인드글라스,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놓쳐서는 안될 관전 포인트가 있다.

현대에서는 활자로 책을 찍어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금속활자가 나온 14세기 이전만 해도 책을 만드는 과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책을 보는 것은 일부 상류층의 특권이였다.

이번 전시에는 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활자판 28종이 전시됐다. 금속활자장인 임인호 장인이 복원한 활자판들이다.

이 활자판을 한 번에 모아 전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는 남아공화국 출신인 윌리엄 켄트리지의 작품이 상영된다. 현대 미술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그의 작품은 문화의 급진적인 확산과 변형, 그리고 다른 세계와의 융합을 서양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애니메이션이다.

먹으로 칠한 중국의 고서와 고지도를 배경으로 러시아의 오래된 오페라에 맞춰 춤을 추는 아프리카 무용수를 스크린을 통해 보여준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일본 작가인 료이치 쿠로카와의 작품 'unfold'를 볼 수 있다. 그는 미디어 아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골든 니카'를 수상한 작가다.

그의 작품은 현대에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우주의 탄생을 시각화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으로 프랑스 파리 우주 연구소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해 태양계와 은하,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지를 3D 영상과 웅장한 음향으로 표현했다.

주제 전시를 기획한 김승민 수석 큐레이터는 "직지는 극소수만 누리던 정보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지식 민주화의 씨앗"이라며 "이런 직지의 의미를 재조명한 작품들을 전시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6 17:01 송고